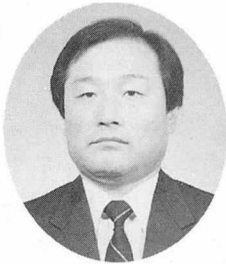


## 월간양돈에 바란다

### “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제공에 힘써야”



김충세  
(본회 제주도협회회장)

월간양돈지가 창간 15주년을 맞은 데 대하여 양돈인으로서 긍지를 갖는다.

몇 달 전 월간양돈지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육돈생산비가 외국과는 비교가 안된다는 사실(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이 53%, 덴마크 61.8%, 대만 87%)과 함께,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산원가를 18.7%나 절감해야 한다는 글을 읽고 암담했던 기억이 난다.

외국에서 수입한 돼지, 수입 원료로 만든 사료, 수입 기자재, 그리고 외국의 기술로 양돈업을 해야 하는 우리들로서는 국제경쟁력 저하가 어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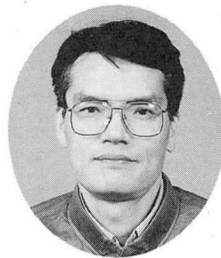
실제 수입개방과 축산폐수처리법의 강화로 영세한 소규모 양돈농가들이 양돈업을 포기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독농가로서 매우 가슴이 아프다. 뿐만 아니라 수입개방에 따른 전담기구나 별다른 대안조치 하나없이 마치 축산인들이 폐수를 만들어내는 주범인양 처벌위주의 행정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대형 유통 축산물판매장까지 개방될 경우 열악한 우리의 유통시장마저 잠식당할 우려속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우리 양돈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때인 지금, 월간양돈지가 해외정보, 경비절감 및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사양관리시스템 정보, 그리고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특색상품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역점을 뒀어야 할 것이다.

이제껏 월간양돈지가 우리들의 대변자가 되었다 듯이 앞으로도 우리들의 목소리를 한 데 모아 주고, 올바른 정보를 제시해 주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한다.

### “좀더 현장감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기를...”



노동환  
(본회 나주지부장)

대한양돈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양돈은 우리나라 양돈업뿐만 아니라 전 축산업의 발전 내지는 여러 분야의 조직적인 생산자단체의 발전 및 육성에도 커다란 역할을 했다. 특히 오늘날 양돈업의 현대화에 기여했고 정부의 축산정책의 방향

## 월간양돈에 바란다

설정에도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오랜 역사를 가지고도 월간지가 현실적으로 우리 양돈인들에게 많이 읽혀지지 않는 것 같다. 특별한 사람이나 관심있는 사람에게만 읽혀지는 것 같아서 몇가지 월간양돈에 바란다.

첫째, 양돈은 고차원적인 기술 이전에 현장감각이 중요하고 실제적인 현장적용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분만사에서의 일은 학자, 교수, 농장장보다는 분만사 담당의 실무적인 경험이 독자들의 가슴에 와 닿는다. 따라서 이런 방향의 글이 요구된다.

둘째, 너무나 많은 PR광고로 실속이 없는 것 같다. 광고를 선별하고 한 업체가 매월 광고하는 것 보다는 간격을 두었으면 한다.

셋째, 양돈인이 고루고루 읽을 수 있도록 재미있고 실속있게 편집하여 좀더 대중화를 시켜야 될 것이다. 최근 여러 기관에서 많은 양돈관계 서적이 나오니 이런 면에 더욱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아무튼 그동안 애써 준 양돈지 편집요원들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좋은 편집업무로 위기에 있는 한국의 양돈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쉽고 현실적인 내용 기대”

서 기 표  
(본지 독자)

요즘 일반 사양가들이 품질개량이라는 과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무척 고무적인 현상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서 현실적으로 사양관리의 문제점을 제기 아니할 수 없

다. 품질개량의 형태가 등지방이 얇고 살코기가 많은 유럽종 계통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 일반사양가들은 유럽종에 대한 전문적인 사양관리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월간양돈이 지면을 통해 유럽종에 대한 사양관리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양돈발전에 기여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그 내용이 과연 사양가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대부분의 사양가들은 월간양돈이 이해하기 쉽고 지루하지 않아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지침서가 되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앞으로 월간양돈이 유럽종에 대한 사양관리기술을 「후보돈에서 비육출하까지」 사료급이, 백신 접종, 질병예방·치료, 환경, 기타 등 세부적으로 전문경영인들의 풍부하고 솔직한 경험과 지식을 발췌해 연재 제공함으로써 수입개방이라는 거센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 주기를 바라며, 창간 15주년을 맞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 “선진국의 농촌금융제도 심층 취재해 주기를...”

이 일 형 과장  
(제일사료(주))

월간양돈지의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필자도 1980년대 중반기에 월간양돈 편집을 담당했었던 한 사람으로서 먼 발치에서 항상 월간

## 월간양돈에 바란다

양돈지의 성장, 발전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을 대변하는 매체로서 귀지의 정보전달 및 양돈인 권익보호기능은 막중하다. 바야흐로, 무한경쟁의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양돈선진국과 어깨를 겨루는 데 반드시 필요한 능력인 지식, 기술, 자세를 양돈경영자들이 겸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면을 할애해 주었으면 한다.

필자가 축산업 최일선에서 양축가와 함께 뛰면서 느낀 것은 열악한 조건하에서 열심히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양돈경영자들의 사기를 높여 주는 데 가장 긴요한 것은 자금난 해소이다. 시설개선, 종돈개량을 하고 싶어도, 담보가 없어 찢쩍대는 사양가들이 태반이다. 귀지에서는 선진제국의 농촌금융제도를 심도있게 취재하여 장기저리 신용대출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사양관리기록없이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은 공염불이다. 모든 두당 연간 23두를 출하하지 못하면 무한경쟁에서 자연 도태되고 만다. 인공수정, 자동환경제어 원도우레스돈사, 슬러리, ALL IN-ALL OUT, 주간 BATCH 시스템, 전문화, 분업화 등 양돈선진국의 시설 및 사양관리방식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적용하는 데에 현 단계에서는 일부 재력가외에는 현실적으로 자금난때문에 그림의 떡이나, 돈 안들고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최소한의 성장단계별, 임신단계별 사료급여량과 음수량 준수 및 중부, 분만, 이유, 도폐사, 백신, 70일령 체중 체크기록 유지와 함께 후보돈 선발, 발정유도 및 체크, 임신진단 등에 지금보다 관심을 많이 쏟는다면 공태일수 단축에 따른 모돈회전을 증가와 사료효율 향상으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근자에는 양돈전산화기술도 많이 보급되어 생산성 향상에 일조하고

있으나, 어쨌든 월간양돈에서 사양가의 간지러운 곳을 적시에 긁어줄 수 있는 편집내용을 기대하며, 귀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 “21세기 양돈산업의 방향 제시해 주길...”



원 세 현

((주)동방 기획부)

월간양돈의 창간 15주년을 축하드리며 개방화를 향한, 길고 험난한 항해로의 외로운 조타수(操舵手) 역할에 양돈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돼지고기를 '97년 7월 10일 전면 개방하고 '95년~'97년까지 3년간 쿼타제에 의해 3~5%의 무적 수입이라는, 바둑으로 보면 상대방 포석(布石)이 놓여진 이 시점에, 불리한 국면을 유리하게 전환하기 위한 포석이 시급하다고 본다.

반상의 집이 모두 우리들의 집이 될 수 없듯이 냉철한 사고로 철저히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사업으로 2000년까지 6,000여 전업농가 육성 및 생체 kg당 생산비 1,000원으로의 생산비 절감이라는 청사진

## 월간양돈에 바란다

이 제시되었으니 장미빛 청사진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 양돈인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소아(小我)를 버리고 대의(大義)를 따르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월간양돈은 바둑의 기보(碁譜)에서, 수순에 따른 생사 및 실리를 보여주듯 수입개방 및 21세기를 대비하는 양돈산업의 단계적 수순 및 경쟁상대의 대처방안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여줌으로써 6만 4천의 양돈농가 및 관련업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험난한 수입개방시대에 대비한 현명한 포석을 기대한다.

### “생산비 절감 노력에 도움 줄 수 있기를...”

김 희 순  
(세원물산 대표)

월간양돈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세월이 유수같음을 절감한다.

관련업계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UR타결로 더욱 어려워진 우리 축산의 현실을 우려하며 월간양돈이 앞으로 양돈인들에게 제시해 주어야 할 것들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말해보고자 한다.

우리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생산비 절감일 것이다. 우리 양돈산업의 생산비가 외국과 비교해 턱없이 높아 국제경쟁에 직접적 장애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그간 여러번 소개되고 제시되었지만 여러가지 불합리한 여건때문에 실행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사양관리기술의 개선, 시설 개선, 각종 투자비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최근 양돈인들이 인건비와 노동력 절감을 위해 시설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

시설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는 우수한 시설과 기자재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막대한 투자를 하고서도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낭비에 불과한 것이다.

적절한 투자를 해서 노동력 절감 효과를 거둔 경영자가 있는 반면 투자에 비해 별효과를 보지 못해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양돈인들이 있다. 월간양돈이 이들에게, 또한 그러한 불행을 맞볼 수 있는 양돈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시설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있어야 한다. 최신시설과 기자재, 선진국의 시설 개선 추세, 구체적이고 적절한 사용방법, 그에 소요되는 투자비용 등 현실적, 구체적 내용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우리 양돈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2000년대 한국양돈에 비전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경쟁력없이는 양돈업 지속 여부마저 위협받고 있는 지금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 양돈인들이 슬기롭게 극복하기 바라며 월간양돈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한다. 